

# 東亞日報

donga.com

## “45분간 이어지는 베토벤 소나타의 정점 ‘하머클라비어’”

佛 피아니스트 프랑수아프레데리크 기

“고전 피아노 소나타의 절대자  
시즌마다 연주할 만큼 아껴”

전 세계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 
30일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서 공연

“하머클라비어 소나타는 피아노 소나타의  
절대자이며, 베토벤에게도 궁극의 소나타입  
니다.”

프랑스 피아니스트 프랑수아프레데리크 기  
(50)에게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29번 ‘하머클  
라비어’는 그가 연주하는 동기이자 목적이다.  
그가 21년 전 처음 음반으로 발매한 베토벤 소  
나타도 이 곡이었다.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  
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 
연주하고 있는 그가 30일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  
에서 이 ‘최애곡(最愛曲)’을 선보인다. 늦봄의  
컴피스에서 그를 만났다. 2017년부터 해마다  
두 차례씩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리사  
이름을 얻어 온 그는 지난해 본보 인터뷰에서  
‘베토벤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보편적인 휴머니  
즘’이라고 설명했다.

“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도 특히 ‘하머클라비어’  
에 천착해 왔습니다. 이유가 무엇입니까.”

“하머클라비어는 고전 피아노 소나타의 정점  
을 이룬 곡이죠. 45분이나 되는 장대한 작품이



30일 연주에 앞서 23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베토벤  
소나타 26번 통을 연주한 프랑수아프레데리크 기는  
“절고 열정적인 청중의 반응이 매우 인상 깊었다”고 말  
했다. 김재경 기자 [kjw@donga.com](mailto:kjw@donga.com)

고, 피아노 솔로곡의 규모를 변화시켰습니다.  
이후에도 베토벤은 피아노소나타 3곡을 썼지  
만, 그 곡들은 클래식 소나타 이후의 다른 세계  
로 넘어간 곡입니다.”

“장대한 만큼 연주도 쉽지 않을 텐데요.  
“모든 것이 이전을 뛰어넘습니다. 더 크고 복

잡하고 더 기교적으로 새롭습니다. 느린 악장은  
9번 교향곡을 연상시키며, 짧은 연결구를 지나  
마지막 악장 푸가로 넘어가죠. 우주 탄생의 ‘빅  
뱅’에 비유할 만한 부분입니다. 이 푸가는 ‘바흐  
를 넘어선 극단’과도 같고, 내면의 광기랄까, 번  
득임까지 드러냅니다.”

“그렇게 힘든 곡을 사랑하는 건가요.  
“시즌마다 연주합니다. 내게는 ‘침대 머리맡에  
있는 책’과 같은 친근한 작품이죠. (웃음) 백 번  
이상 쳤고 세 번 음반으로 내놓았습니다.”

“프랑스인으로서 베토벤을 연주하는 것은 어떤  
느낌입니까.”

“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 스승 리언 플  
라이셔는 대(大)피아니스트 아르투어 슈나벨의  
제자이고, 슈나벨은 테오도르 레세티츠키, 그  
위로는 리스트,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사제관계  
였습니다. 이런 위대한 전통에 연결돼 있는 데  
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”

이번 연주회에서 그는 ‘하머클라비어’ 외에  
베토벤의 소나타 19, 20, 11번을 연주한다. 그  
가 서울에서 펼쳐 온 베토벤 소나타 대장정은  
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내년 금호아트홀  
연세에서 두 차례의 연주로 끝을 맺는다. 워싱  
턴, 파리, 라우, 몬테카를로, 부에노스아이레스,  
도쿄 등에서도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펼치  
고 있는 그는 내년 5월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 
파리 체임베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솔로  
도 겸해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곡 전곡을 연주  
한다. 5만 원. 02-6303-1977

유윤종 문화전문기자 [gustav@donga.com](mailto:gustav@donga.com)